

인터넷신문 www.경영저널.com

THE CRITIC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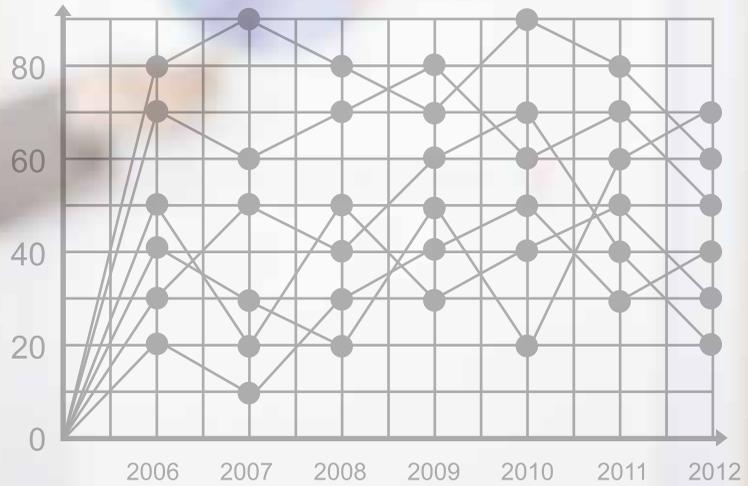
경영저널



Hot Issue 한국에서 파크골프의 부상
공공요금 택시요금 진단
시사in 위기속 의료감정의 공정가치구현
커버스토리 이남철 경상북도 고령군 군수
지자체가 된다 세계유산도시로 도약하는 고령
기업탐방 도청탐지의 달인
이달의 대경인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
Economy AI경제
칭찬합시다 상주 박물관의 꽃, 학예팀 조연남 팀장

61TH
2024 **5**

www.**KEPI**.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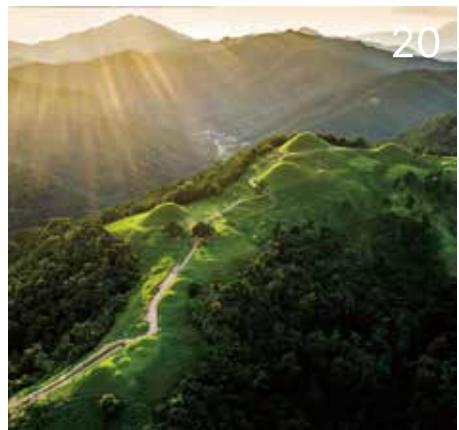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한 | 기 | 연



- 06 **청호(靑浩)칼럼**
22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 08 **Hot Issue**
한국에서 파크 골프의 부상
- 10 **공공요금**
택시요금 진단
- 12 **시사 in**
위기속 의료감정의 공정가치구현
- 14 **커버스토리**
고령군 이남철 군수
- 20 **지자체가 뿜다**
찬란한 대가야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삼아 세계유산도시로 도약하는 고령
- 22 **'세계유산도시, 고령'으로의 초대**
'2024 고령 대가야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 24 **기업탐방**
도청탐지의 달인 주식회사 셉코
- 26 **경북축제 / 대구축제**
2024 문경차사발축제, 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2024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2024 대구디아프'Diaf」
- 28 **경영평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
- 30 **이달의 대경인**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 인터뷰



INCELLDERM



미백 / 주름개선 2중 기능성 화장품

어린 세포에 빛을 전하는
Byungpool Energy Fluid의 힘

더마톨로지 퍼스트 패키지 EX | 액티브 크림 EX





30

32 **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 고령의 산업단지

34 **칭찬합시다**
상주 박물관의 꽃, 학예팀 조연남 팀장

36 **Economy**
AI경제

38 **음식명가**
'녹원家'

40 **기행 Story**
대구 여성들의 발자취-대구 근대골목 일대

44 **초대석**
돈이란 무엇인가?

48 **법과 제도**
2023년 공유재산 질의회신 감사 사례

50 **대구 단신**

52 **경북 단신**

54 **불편한 진실**
배우자 출산휴가, 현실을 무시한 강행규정

경영저널 통권 제61호

발행인	이진구
편집국장	김문철
취재	김원현, 오상원, 이가윤, 이경윤
사진	신영민
편집디자인	김수영
편집위원	조대영, 윤일형, 김용우
디자인·인쇄	위커스 대표 김정석
발행처	http://www.경영저널.com
본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대구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대로5길 48-19
대표전화	대구 053) 766-1368~9 FAX 053) 766-0379
등록번호	경산.라 00011
창간	2007년 11월 5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7369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연 100,000원
정가	10,000원
예금주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은행 225-12-003611
	농협은행 301-0258-049101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용지 1장(글자 10포인트)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시 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대로5길 48-19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bmjglobal999@gmail.com
전화: 053)766-1368~9 FAX)766-0379

■ 청호(靑浩)칼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집권여당의 참패

제22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더불어 민주당 161석, 국민의 힘 90석, 그리고 새로운 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 1석으로 모두 254석이다. 총선 비례대표는 국민의 미래 18석, 민주연합 14석, 조국 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으로 총 46석으로 결정되었다.

제22대 총선, 무효투표수 역대 최대

이번 선거의 특징은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무효투표수가 역대 최대인 130만 9931표이다. 무효투표수는 개혁신당, 녹색 정의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당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비례대표 투표가 국민의 미래 36.7%, 더불어 민주연합 26.7%, 조국혁신당 24.3%이며, 개혁신당 3.6%, 녹색정의당 2.1%, 그리고 새로운 미래 1.7%로 발표했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서로 연동해서 지역구에서 많은 의원을 당선시킨 당에 비례 의석을 적게 배정하는 준연동형 제도이다.

정권심판론이 최대의 이슈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심판으로 이어진 제20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2대 총선은 정권심판 여론으로 선거에서 참패하였다. 패배원인은 이태원 참사, 2023 잼버리 파행 운영, 채일병 외압사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실패, 경기침체, 그리고 민심 이반 등으로 분석된다.

국민의 힘은 지난 해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패배로 인하여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중심으로 총선을 준비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선거의 여러 가지 약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로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제6공화국 헌정상 처음으로 무소속 의원이 없다는 점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무소속이 단 1석도 없다는 점, 그리고 제3지대로 윤석열 정부의 정권심판론으로 조국 혁신당 12석과 개혁신당 3석을 얻었다는 것이다.

제22대 총선은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집권 여당



과 정권심판론으로 투표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총선은 여당이 36%인 108석과 야당 64%인 192석의 결과로 윤석열 정부의 힘든 국정운영이 예견된다.

제18대·제19대 총선과 제20대·제21대 총선결과는 정반대

제22대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 즉 국정안정과 인과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8대 총선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진 선거로 국정 지지율이 약 52%가 넘어 보수가 과반수 이상 의석을 얻었다.

제19대 총선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로 국정 지지율이 23%이지만, 박근혜라는 차기 대권자의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가 과반을 넘겼다.

제18대(2008년)와 제19대(2012년) 총선결과는 보수의 투표가 50% 이상인 반면에 진보투표가 30% 전후로 나타났다.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

제20대 총선은 박근혜 정부로 국정지지율이 39%, 제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로 국정 지지율이 57%로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최근 제20·21대 총선은 지난 제18·19대와 정반대의 투표결과로 나타나 보수가 35% 전후인 반면, 진보는 과반의석수를 넘겼다.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제21대 총선에서 원내 의석 당인 녹색 정의당이 0석이라는 점과 사전투표율 31.28%와 투표율이 67%로, 각각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이진구
대표이사·발행인



성형도
브이도
피부도

V PLASTIC DERMATOLOGY



브이성형외과

대표전화 1577-2604

오시는길 대구 중구 공평로 10길 18 브이스퀘어
(삼덕동 중앙도서관 맞은편) 4~7층

진료시간 월·수·목 09:00 - 19:00

화 · 금 09:00 - 20:30

토요일 09:00 - 17:00

한국에서 파크 골프의 부상 : 노인들의 여가 현상



파크 골프는 전통 골프를 단순화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든 골프이며, 한국에서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에서 시작된 이 스포츠는 전통적인 골프에 비해 저렴하고 육체적으로 힘이 덜 들어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원하는 노인들에게 이상적이다.

파크골프의 매력

파크 골프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성과 경제성에 있다. 클럽과 볼만으로 구성된 장비와 더 짧고 덜 힘들게 설계된 코스를 갖추고 있어서, 남녀노소, 신체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라운드당 2,000~5,000원 사이의 저렴한 플레이 비용으로 인해 전통적인 골프 수수료에 비해 매력적인 옵션이 된다.

성장과 인기

서울 등 도시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증가하는 것은 파크 골프 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기존 골프장은 넓은 부지와 상당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만 파크 골프장은 더 작고 도시적인 공간에 조성할 수 있다. 특히 공간이 부족하고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제한된 도시에서 파크 골프 시설의 수가 증가했다.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파크 골프 코스는 건전한 육체 활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선수들, 특히 스포츠가 제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 따른 노인들 간의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게임은 기존 골프보다 더 느린 속도와 덜 경쟁적인 분위기로 진행되어 참여자들간에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파크 골프에 대한 정기적인 참여는 노인들의 야외 활동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건강 개선, 만성 질환 위험 감소 및 사회적 참여를 통한 정신 건강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크 골프장 확산에 따른 우려와 과제

이러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파크 골프장의 급속한 확산은 무분별한 도시 계획 추진과 과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파크 골프장의 확산에 따른 도시 공간 활용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방 정부에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도시 토지에 대한 최선의 활용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더 넓은 범위의 활동과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의 보다 다양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접근성이 높은 파크 골프의 매력

전통적인 골프는 오랫동안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스포츠로 인식되어 왔으며, 높은 비용과 일반 개인의 접근

이 제한되는 독점적인 멤버십이었다. 반면, 파크 골프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지 않는 민주화된 스포츠 형태를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전통적인 골프 코스가 드물고 비싼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유익한 생활인프라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한국 노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여가 활동으로 파크 골프가 등장한 것은 보다 폭넓고 접근 가능한 형태의 레크리에이션으로의 중요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 개발과 시설 관리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파크 골프의 사회적, 건강적, 경제적 이점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다양한 레저활동에 대한 수요로 파크 골프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에, 정책 입안자와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균형을 유지하여 모두에게 유익한 생활인프라로 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김용우 편집위원

택시요금 진단



현재 택시요금은 인건비, LPG 가격 등 운송원가가 상승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하여 각 시·도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택시업계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택시요금이 인상되었다.

먼저 서울시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었다. 가격은 올렸는데 기본요금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었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당 100원인 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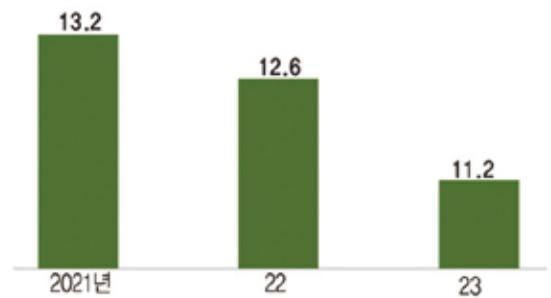
대형 승용이나 모범택시의 주간 기본요금의 경우는, 3km까지 7,000원으로 조정 전보다 500원 인상되었고, 거리나 시간 요금은 바뀌지 않았다. 심야 할증시간은 22~04시는 기본요금 3km까지 8400원, 거리요금은 151m당 240원, 시간은 36초당 240원이다.

심야요금은 조정 전보다 2시간 앞당겨 22시부터 04시까지로 앞당겨졌고 22~23시, 02~04시 / 23~02시로 나누어 요금에 차이가 있으며 기본요금은 최대 6,700원으로 올랐다.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산시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8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4,800원으로

12월 택시 이용률

(단위:%)



* 자료: 영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적용되었다.

기본요금과 함께 거리당 요금(미터기)도 인상되었다. 택시 기본요금 유효구역은 2km인데, 2km 이후에는 100원씩 올라간다. 기존 133m에서 132m로, 1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조정되었다.

이어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km 기준)이 기존 6,000원에서 7,500원으로 인상되었다. 모범·거리요금의 경우 200원당 141m에서 140m로, 시간당 요금은 2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조정되었다.

대구시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 4,000원, 거리요금 130m 100원, 시간요금 31초당 100원이며, 모범택시는 기본요금(3Km)

택시요금표 (중형택시 기준)

지역	기본 요금 (2km까지)	주행 요금 (100원)	시간 요금 (15km/h이하 주행 시 100원)	심야할증		시계외할증	복합할증	시행일자
				시간대	할증률			
서울	4,800원 (기본거리 1.6km)	131m당	30초당	22~23시	20%	20%	40~60%	23.02.01 (19.3%인상)
				02~04시				
부산	4,800원	132m당	33초당	23~24시	20%	30%	-	23.06.01 (15.6% 인상)
				02~04시				
대구	4,000원	130m당	31초당	23~04시	20%	30%	40%	23.01.16 (13.5%인상)
경북	4,000원	131m당	31초당	23~04시	20%	20%	50~63%	23.08.01

* 출처 : 각 시도 홈페이지

5,500원, 거리요금 113m당 200원, 시간요금은 26초당 200원으로 하고 심야할증시간은 23시부터 04시까지로 적용되었다.

경상북도는 2023년 8월 1일 기준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700원 인상된 4,000원, 거리운임 기준은 134m에서 131m로 3m 축소되며, 시간운임 기준 또한 33초에서 31초로 단축되었다. 할증 및 호출요금은 심야 적용 시간도 밤 12시 ~ 오전 04시에서 오후 11시 ~ 오전 04시로 한 시간 앞당겨 적용되었다.

지난 3년간 12월 택시 결제건이 있는 만19~69세 4만4594명을 대상으로 연말 택시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3년째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택시비 인상은 연말 「빈차 대란」이라는 후폭풍을 몰고 올 정도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3년간 12월 택시 이용률은 2021년 13.2%, 2022년 12.6%, 2023년 11.2%로 집계됐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심야 시간 이용률 역시 3년간 4.9%, 4.7%, 4.2%로 감소세가 이어진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측은 「4년 만에 인상된 택시 요금 정책으로 인해 더 많은 이용객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지자체 중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지난달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정작 택시 매출 증가율은 1%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요금 인상률이 26%에 달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운행효율이 악화된 셈이다.

구분	인상전	인상후
대당매출(원)	20만4067	20만6608
영업건수(건)	24건	19건
운행거리(km)	280	262
실차거리(km)	196	159
실차율(%)	70.0	60.7

*인상전(2022.12~2023.1), 인상후(2023.2.1~20)
*일평균 영업대수: 인상전 1만273대, 인상후 1만654대
[자료=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교통안전공단]

기본요금 인상 후 택시 영업건수도 줄었다. 요금 인상 전 택시 한 대당 일평균 영업건수는 24건이었으나 요금 인상 후엔 19건으로 줄었다.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택시 요금을 인상한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지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표가 말해주듯 택시요금 인상은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의 직장인 이모(37)씨는 「업무상 평소 같은 거리를 택시로 자주 오가는데, 한 번 이용하는데 매번 5천원대 초반이던 택시 요금이 6천원대로 오른 걸 확인하고 요금 인상을 실감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직장인 유모(32·여)씨는 「기본요금 1천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같이 이용하던 사람에겐 큰 부담이다」고 토로했다.

오상원 기자

위기속 의료감정의 공정가치구현

소송 실무에서 의료감정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교통사고와 복합통증증후군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의료감정이 지연되면서 8년 동안 재판 중인 소송이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감정이 필요한 민사소송에서 정신감정 등 진료비용이 더해져 의료감정료가 1,000만 원을 상회한 사건이 있고, 객관적 증거를 관찰하여 감정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감정 결과의 공정성이 문제된 사건도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동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실무상 의료감정은 의료감정의 불공정성, 감정회신지연으로 인한 재판지연, 고액 감정료 등으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의료감정의 불신과 재판청구권의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의료감정절차 실무

법원에서 의료사고와 관련된 민·형사 재판의 경우, 자동차 사고 보험금청구 및 산재 소송 등에서 의료감정이라는 감정 절차가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진료기록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진료기록감정과 일실수입, 치료비 등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신체감정이 증거절차로 실무상 활용된다.

의료감정결과는 모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법관의 규범적 판단 영역이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결과가 의료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현실이다.

감정의의 선정은 국·공립병원 및 대학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감정의원들 중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외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촉탁절차로 이루어진다.

의료감정에 있어 감정료 저렴과 고액의 양면성

감정예규상 신체감정료는 과목당 40만 원, 진료기록감정료는 과목당 6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감정의의 감정결과회신서 작성비용 자체는 저렴하다 할 수도 있어 업무가 과중한 의사들이 감정을 거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법원 내규를 개정해 감정 문항 수나 감정 난이도에 따라 감정료 증액이 가능하게 하였는데, 감정거부나 감정회신 지연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지켜볼 일이다.

그렇지만, 감정료가 실제 감정에서는 정신감정 등 진료비용이 더해지면 그 비용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인 경우도 심심찮게 있어 고액 감정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감정에 있어 감정회신지연과 감정의 불공정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은 감정 결과회신이 6개월 이상 1년에서 2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다. 회신된 감정결과에 공정성을 문제삼아 소송상대방이 감정보완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게 되는 경우는 재판이 무한정 길어져 재판 지연의 주원인이 된다.

한편, 의협이나 중재원 감정은 감정 결과가 기관의 장 이름으로 회신되어 감정의 성명이 익명으로 처리되는 게 현실이다. 익명감정은 의료계의 학연이나 학회 등 친분관계로 의료기관에게 유리한, 환자에겐 불리한 감정 결과를 제공하여 그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는 재판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감정결과의 공정성 관련해 실무상 비판이 적지 않다.

의료감정의 공정가치구현으로 의료감정위기 극복



감정의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하도록 하고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의료감정 전문의를 양성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처럼 자격인증 시험을 통과한 자격을 갖춘 감정의 풀을 만들어 운영하는 의료감정전문 의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제도개선도 희망해 본다. 고액의 감정료 개선방안과 의협과 중재원의 의료감정 절차상 회신지연에 대한 개선의 의지 및 제도 개선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고등법원 000판사는 「의료감정을 함에 있어 감정료는 일률적·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감정의 난이도, 피해자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감정결과 회신도 두세달 정도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감정의에게 회신지연에 따른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위기에 처한 의료감정의 공정가치구현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의료영역의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

법관도 감정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의 증거방법을 활용한다거나 감정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의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사건 당시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치밀한 검토를 통한 자유심증에 따라 공정한 판단에 따른 재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사법부 신뢰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편집국

| 인터뷰 |

이남철

경상북도 고령군 군수

Profile

1960년 10월 08일 고령 출생

고령초등학교 졸업

고령중학교 졸업

고령고등학교 졸업

가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2019.1~2020.12 고령군 행정복지국장

2022.7~민선8기 제46대 경상북도 고령군 군수(현)



찬란한 대가야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세계유산도시로 도약하는 고령군의 수장 이남철 군수님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민선 8기 고령군은 이남철 군수님의 진두지휘하에 「젊음이 넘치고 힘있는 고령」으로, 「군민과 함께 새로운 고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표방하며 닳을 올리고 힘차게 향해 중이다. 고령군에서 2014년 「국가사회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하며 41년간 헌신과 열정으로 공직생활을 수행하면서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는 선행도 펼쳐왔다. 2022년 7월 고령군수에 취임하여 「발로 뛰는 군민중심 공감행정」으로 숨 가쁘게 달려 오면서 ◇대가야축제「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선정,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국무총리상」,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종합평가「최우수상」, ◇경북도 채소·특작분야 시책평가「대상」 등을 수상하면서 혁혁한 성과를 내오고 있다.

열린 행정으로 군민과 함께 새로운 고령을 만들어 가는 이남철 고령군수

Q 오는 6월이면 취임 2년이 되는데, 군민과 현장소통으로 현장중심의 군정을 이끌어온 소회와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한 말씀 한다면?

A 지역 발전의 원동력은 군민과의 소통, 화합, 그리고 통합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군민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 내면 군민과 행정이 하나 되는 「열린 행정」이 됩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취임부터 지금까지 50여 차례 이상의 소통콘서트를 통해 민선8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소통콘서트는 군정 추진의 기본철학으로 상시 개최하며 군민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생각입니다.

또한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군민이 원하는 정책을 현장에서 찾고 군민의 이해와 지원을 바탕으로 해야 정책은 순조롭게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봅니다.

그 결과, ◇그린바이오산업화 소재 및 산업화 시설 구축지원사업,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세계유산축전 등으로 총 60건이 넘는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대가야축제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선정,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종합평가 「최우수상」, ◇경북도 채소·특작분야 시책평가 「대상」, ◇경북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상」, ◇국가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 등 수많은 수상으로 고령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군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은 값진 결실입니다.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Q 고령군 인구 3만명선이 위태로운 가운데, 5·5·5프로젝트의 성공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의 가시적인 성과와 구체적인 실현계획은 어떠한가?

A 5·5·5프로젝트는 「인구 5만, 신규주택 5천, 청년인구 5천명의 기반조성」을 통해 군정목표 실현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선8기 고령군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저출생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등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에 작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더욱 힘든 여건이지만, 고령군은 도시를 살리고, 인구 유입에 유효한 정책으로서 신도시 개발과 정주 인프라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인접한 다산면을 중심으로 약 1,800세대가 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곽촌지구와 인접한 상곡·좌학지구에는 각각 631세대, 463세대가 입주가능한 공동주택을 건립 중이며, 이러한 주거단지 조성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노후상수도 정비,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등 신도시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청년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지역에 청년 정착을 유도하고, 이와 함께 지역활력타운 및 천년건축 시범마을, 청년농촌보금자리 및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그리고 청년복합귀농타운 등을 집약적으로 진행하여 안정적인 주거 인프라를 조성함과 동시에 경제활동 영역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주 인구뿐 아니라 통근·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생활인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및 고령팜 실습농장 조성, 생활인구 특화프로젝트, 그리고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활인구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규산업단지 조성 및 첨단산업 유치, 청년일자리 대거 창출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다산 월성일반산업단지의 준공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는 우수한 인재들을 지역에 정착시킴은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의 기회까지 보장되기에 다른 지역으로부터 청년을 끌어들이는 주요한 과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해 9월 24일 지산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고령군이 보유한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새로운 문화관광 트렌드로 발전시킬 방안은 있는가?



2024년은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등재 1년차에 들어서는 해이면서, 이를 널리 알리고 향유할 수 있는 본격적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고령군은 우선 「2024 세계유산축전」과 「2024 문화유산야행」 등 고분군을 주제로 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축전은 국내에서 세계유산을 활용한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야고분군 중 단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해설사, 순회전시 및 사진전, 그리고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유산도시 고령군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고령군은 세계유산을 무작정 상품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산동고분군의 진정성과 완전성, 그리고 가야문명을 증명하는 독보적 증거라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방문객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고려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유산의 성격규명을 위한 발굴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한 뒤 여러 콘텐츠와 접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산 주변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대가야박물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생활촌 등과 연계를 통해 지산동고분군과의 벨트화를 추진하여 고령군이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도시이자 세계유산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일자리창출이 중요하다.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중에 있는가?



저는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는 청년세대뿐 아니라 고령군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해 고령경제의 재도약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대구 제2국가 산업단지 지정으로 대구권 메가시티의 배후도시로서 고령군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후 산업단지 입지의 최적지로 현재 조성 중인 월성·열매·송곡일반산업단지 등을 조속히 준공하여 첨단 앵커기업 유치로 양질의 청년일 자리를 창출하고, 고령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건립과 노후산업단지 대개조사업, 대가야 하이패스 IC, 달빛철도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규 일자리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군 일자리·청년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 기업간의 미스매치 현상을 최소화하고 ◇청년 공공인턴제와 지역 정착지원사업 확대, ◇청년몰 운영 및 창업인센티브 제공, ◇청년농부리더 육성,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다각적인 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생동하고 영글어가는 고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Q 대도시인 대구시 배후도시로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역점사업 추진방안은 어떠한가?



이제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드디어 고령군은 영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달빛내륙철도 건설 가능성에 따라 배후도시로서 고령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달빛철도 고령역사가 건립된다면 고

령역에서 서대구역을 거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물론 포항 영일만항까지 연계되는 등 도로, 항공, 항만, 철도 4대 SOC의 연결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령군은 대구와 연접한 산업경제도시이자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늘어나는 산업물류 이동은 달빛철도가 건설됨으로써 더욱 원활해질 것이며,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의 변화를 일으켜 접근성 향상은 물론 고령의 산업물류 수용량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달빛철도 개통과 고령역 건립을 통한 역세권 개발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대구-경북 혁신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지방시대의 강한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 배후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한 말씀을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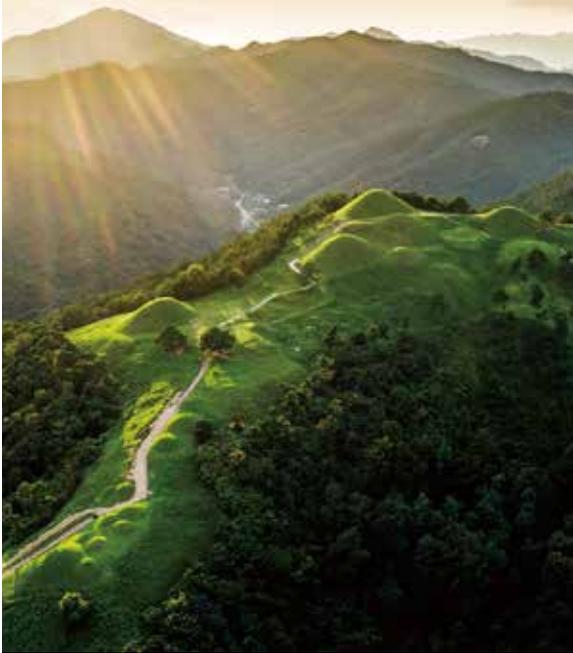
군민과의 소통을 군정추진의 기본철학으로 삼아 열린 행정으로 더욱더 민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일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청년인재가 배출되도록 온 힘을 쏟아부어 「젊은 고령, 힘있는 고령」의 미래를 활짝 열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령군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누구나 찾고 싶은 세계유산도시,
모두가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새로운 고령」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편집국

찬란한 대가야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삼아 세계유산도시로 도약하는 고령



경북도 고령군은 1500년 전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왕국을 건설했던 후기 가야의 맹주인 대가야의 도읍지다. 강대국 사이에서 강력한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찬란한 역사와 문화예술을 꽃피웠던 대가야인의 삶과 문화가 유유히 흐르는 역사문화의 고장이다.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지난해 고령군은 지역성장의 기폭제가 될 의미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9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7개 지역에 산재된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고, 2023년 5월 유네스코 자문기구 등재권고 결정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 낸 성과이다.

이는 가야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등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지산동고분군은 다른 지역의 고분군들보다 고분 분포와 면적에서 압도적이다.

전체 가야 고분군은 1,220기 고분과 면적은 189ha에 달하는데, 지산동 고분군은 704기 고분에 면적은 84.4ha(전체의 44.7%)에 이른다.

이제 고령군은 세계유산을 품은 찬란한 역사문화도시로서 세계유산 등재라는 호재를 지역성장의 기회로 삼고,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나아가 지역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문화유산 관광활성화정책 추진

지난해 5월 고령군은 선제적으로 홍보, 행사, 그리고 정비 등 70여 개 사업을 담은 세계유산 등재 대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은 물론 세계유산 등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유산 야행 및 2024년 세계유산축전 등 대대적 홍보와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문화유산야행을 통해 지산동 고분군을 활용한 특색있는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처음 시도하는 세계유산축전은 등재 1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한 1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한 달에 걸쳐 진행될 계획으로 가야고분군 소재 도시 중 유일하게 고령군이 선정되어 정부 지원을 약속받았다.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산동 고분군이 곧 세계유산'임을 집중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는 5월 19일 '나의문화유산답사기' 저자 유홍준교수와 같이 지산동 고분군 투어 역사 토크쇼도 진행된다.

가야의 맹주였던 '대가야'의 왕도이자 무엇보다 압도적

인 규모와 고분 기수를 자랑하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타 가야고분군 소재지를 잇는 연결지점에 위치해 가야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의 최적지로 꼽힌다.

고령군 통합관리기구 유치와 함께 가야고분군 관광 및 홍보의 거점공간이 될 '세계유산 방문자센터'를 건립하여 지산동 고분군과 개별관광지 간 연계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지산동 고분군 학술발굴조사

고령군은 대가야 최고분인 지산동 제5호분의 학술발굴 조사를 위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20억원을 투입하여 대가야왕릉 발굴조사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산동 제5호분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 일본인들에 의해정치적 목적의 발굴조사가 이뤄진 바 있으며, 그 온전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고분의 성격과 내용이 불분명한 아픈 역사가 서려있는 고분이다.

고령군은 대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산동 제5호분에 대한 재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올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시작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사업을 통한 세계유산도시로서의 도약

고령군은 세계유산 야간경관 조성 및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사업 등을 통해 세계유산의 보존과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대가야 고도 및 문화예술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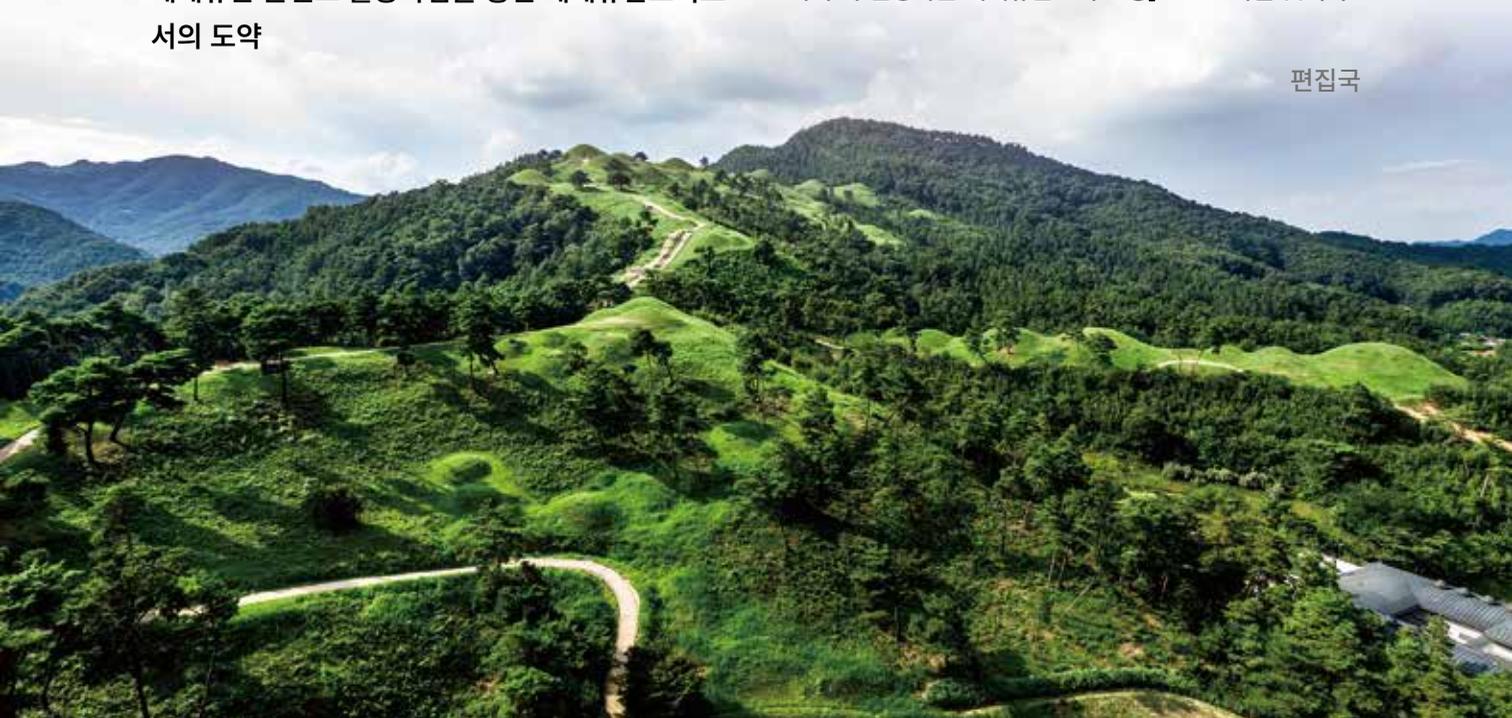
올해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펼쳐진 고령 대가야축제는 지산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주제로 세계유산 등재와 발맞춰 고분군의 매력을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현하여 관광객들에게 신선함과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이남철 군수님은 「올해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을 통해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과 함께 고령군 문화관광산업을 획기적 발전시킬 쌍두마차로 삼겠다」라고 말하였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대가야 고도 지정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되었다. 대가야 고도의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보존된 대가야읍 연조·지산·쾌빈·고아리 일원(411만㎡)이 대상으로 문화재청 중앙고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다 가야의 맹주라는 역사적 위상도 있는 만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고령군은 내다봤다.

고령군은 세계유산도시로서의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문 디자인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지속하고, 달빛철도, 대가야 하이패스 IC, 그리고 광역도로 개설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켜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유산도시 고령」으로 도약할 것이다.

편집국



■ '세계유산도시, 고령'으로의 초대

'2024 고령 대가야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2024년 춘계 종묘대제

역대 최다 인파가 몰렸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난 3월 29일(금)부터 3월 31일(일)까지 열린 "2024 대가야축제"에 22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많은 관광객들이 대가야축제를 방문한 이유는 축제콘텐츠 업그레이드와 야간경관 조성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이 연장되었고, 특히 축제 마지막 날에는 벚꽃 개화로 인해 상춘객들의 발걸음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8회째를 맞은 고령 대가야축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발맞춰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주제로, 지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하여 대가야



축제장 전경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가야축제는 축제 첫날 대가야종묘대제와 고령군민의 끼를 한껏 발산한 군민화합한마당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마무리하였다.



우륵추모제



대가야 길 페레이드(고령군청 임진일 주무관 제공)



대가야 길 페레이드



대가야 길 페레이드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주제관에서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의 추진 과정, 대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모두가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였다.

또한, 축제 둘째 날과 마지막 날 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의 대표 공연인 “100대 가야금 공연”은 100인의 가야금 연주자가 참가함으로써 웅장한 연출과 아름다운 선율로 대가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가야금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객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물하였다.

축제 둘째 날에는 가야 문화권 합창 페스티벌과 창작뮤지컬 ‘도둑맞은 새’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였고, 이어 펼쳐진 가야풍류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는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더불어 공연 중간 펼쳐진 대가야별빛쇼(불꽃놀이)로 대가야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아, 많은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축제 마지막 날 대가야읍 일원에서 펼쳐진 ‘대가야의 길’ 거리 페레이드에는 지역주민 및 축제 참가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 읍면을 대표하는 독특한 의상과 컨셉으로 긴 행렬을 구성하여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이후 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가야풍류 두 번째 공연으로 성대하게 마무리되었다.

이번 축제는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로 구성하여 지난 축제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보여 주었으며, 복합문화공간과 이색 휴게공간 연출로 관광객들에게 신선함과 즐거움을 선물하였다.

올해도 지산동고분군과 테마관광지, 우륵지에 화려한 야간경관조명을 배치하여 늦은 밤까지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은 축제장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였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주민이 즐거운 축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가족 단위로 즐길거리가 있는 축제’라는 기획방향 아래 알차게 구성하였으며, 정말 많은 외부 관광객이 방문하였다며 내년 축제는 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발굴로 대가야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편집국

도청탐지의 달인 주식회사 셉코(SEBCO CO., LTD.)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도청이나 감청, 몰카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TV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불륜이 의심될 때, 정치판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캐낼 때, 소송에서 유리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경우 등 도청이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고의 탐지

20여년동안 수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도청을 탐지하여 사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김정국



대표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셉코이다.

영어'SEBCO'는 'Secret camera and Eaves dropping Busters Company'의 약자로 직역하면 '불법촬영카메라와 도청기를 잡는 사람들의 회사'란 뜻이다. (주)셉코는 다목적 도청탐지, 시스템 및 몰카탐지기를 자체 개발하고, 통신보안컨설팅 업무까지 수행한다. 서울 강남 신사동에 본사사무소를 두고,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주요 제품군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의 달인'에서 도청탐지 달인 선정

2004년에 설립하고, 2005년 불법감청탐지업 등록한 도청탐지업계에선 전통있는 회사이고, 수많은 탐지실적과 탐지기 개발을 해온 유망한 기업이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 촬영지원

2018년 10월 몰카 탐지의 달인으로 '생활의 달인'에 여러번 방송 출연하였고, 2023년 드라마 '눈물의 여왕' 지원요청이 들어와 촬영에 임하기도 했다.

2019년 6월 17일 '서울 몰카와의 전쟁' 관련 방송에서 SBS,KBS, YTN, MBN 등 기자들이나 방송에서 소개된 장비인 SB-003II는 기존 SB-003을 발전시킨 새

로운 장비로 현재 도청탐지기로선 최고로 평가된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도청탐지장비로 활약하였다.

(주)셉코는 위 장비를 포함, ◇SEB-005M, ◇Bug detector, ◇CPM-700, ◇EMF탐지기, ◇NLJD탐지기, ◇IR detector, ◇전자파탐지기, ◇선로분석기 CAM-100, ◇방탐기, ◇영상탐지기, ◇금속탐지기, ◇열화상 장비 등 수많은 도청탐지 최고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4월 개발한 핸디형 종합도청몰카탐지기 SEB-005M은 세계최초로 위치추적기 자동탐지프로그램을 탑재하여,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되었다.

국정원, 사이버공격방어시스템 구축

무료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정원에서 주관하는 사이버공격방어대회에 2019년 10월 29일~30일 부산넥스코에 최초로 전시되었다.

그리고 IOT기술을 이용한 위치추적기 지퍼(GPER)를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주)셉코는 5대기업 중 3곳, SKY대학 중 2곳의 탐지실적을 보유하고, 전국 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탐지실적도 있으며, 공기업, VIP 및 해외 탐지까지 하였다. 현재 00당 청사를 관리하고도 있다.

도청탐지는 도청탐지 장소에 도착하여 레이저 도청 여부를 확인하고, 유무선계열 도청장치를 탐지한 후 최종 육안 확인 및 점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최종보고서 작성으로 도청탐지가 완료된다.

(주)셉코는 불법촬영예방을 위해 단체나 지자체에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90분간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이 필요한 단체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주)셉코는 자체 연구소도 운영하여 불법촬영카메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몰카와의 전쟁에 (주)셉코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청탐지협회장 김정국

김대표는 2014년 12월 대구전파관리소 표창을 수상하고, 2015년 1월 제4대 한국도청탐지협회 회장도 역임하며, 헌신과 열정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 (주)셉코를 도청탐지업계 정상에 올려놓았다.

(주)셉코는 각종 도청방지 장치 설치, 도청 위치추적기 및 몰카 탐지 등의 다양한 실적과 최고의 경험을 축적하여 최고의 실력으로 우리 사회에서 도청이나 몰카를 근절하는데 선봉에 서있으리라 다짐해 본다.

편집국

■ 경북축제

2024 문경찾사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명예문화관광축제인 「문경찾사발축제」가 2024년 4월 27일(토)부터 5월 6일(월)까지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 일원에서 문경시 주최, 문경찾사발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10일간 개최된다.



문경찾사발축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장작가마 도자기축제이다.

「문경찾사발, 새롭게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전통찻사발의 정체성과 생활자기의 대중화를 목표로 도자기 관련 다양한 체험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막식 및 박서진 등 가수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전통도자기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고, 도자기 전시회, 찻사발 그림 그리기 대회도 개최된다.

4대회의 특별행사도 열린다.

◇이색체험인 전국 가루차 투다(鬪茶)대회, ◇문경 찻사발의 가치를 알리는 문경도자기 명품 경매 및 생활자기 경매, ◇전통도예의 우수성과 보존 당위성을 알리는 문경 전국 발물레 경진대회, ◇문경도자기와 꽃을 이용한 찻자리 꾸미기 대회인 제2회 다화(TEAFLOWER) 경연대회 등이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매직퍼포먼스쇼가 마련되어 어린이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재미난 볼거리를 제공한다.

부대행사로 참가자들이 함께 즐기는 한복패션쇼, 전통 줄타기 공연도 펼쳐진다. 문경 국제도자기 심포지엄과 자연과 어우러진 캠핑으로 휴식공간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또한 차인 단체들의 다례시연, 도예작가들의 물레 퍼포먼스쇼,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자유공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문경 농특산물 및 공예품 전시·판매 공간은 프리마켓으로 제공되어 축제기간이 알찬 쇼핑의 기회도 된다.

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경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가 참외 향이 가득한 싱그러운 봄날 5월에 아름다운 성주를 성박숲 일원에서 개최된다.

2024년 5월 16일(목)부터 19일(일)까지 4일간 성주군 및 경북도 후원하에 성주군축제추진위원회 주최 및 주관으로 성대하게 개최된다.

세계명물 성주참외와 세종대왕 왕자태실의 고장 성주군만이 가진 생활사 생명문화를 결합한 다양하고 재밌는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선석산 아래 태봉(胎封)에 있는 세종대왕 왕자 태실지(사적 제444호)는 원형이 잘 보존된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태실은 옛날 왕실에 출산이 있을 때 그 출생아의 태(胎)를 봉안하고 표적을 세운 곳으로 태봉(胎封)이라고도 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래와 같다.

5월 16일(목) 16:00 성주읍 일원 및 성박숲 메인무대에서 전야제 태봉안 행사 재현행사, 길놀이 화합 큰 잔치가 열린다.

지역예술단체공연은 5월 18일(토)까지 이어진다.

5월 17일(금) 개막식 및 김종국 등 초대가수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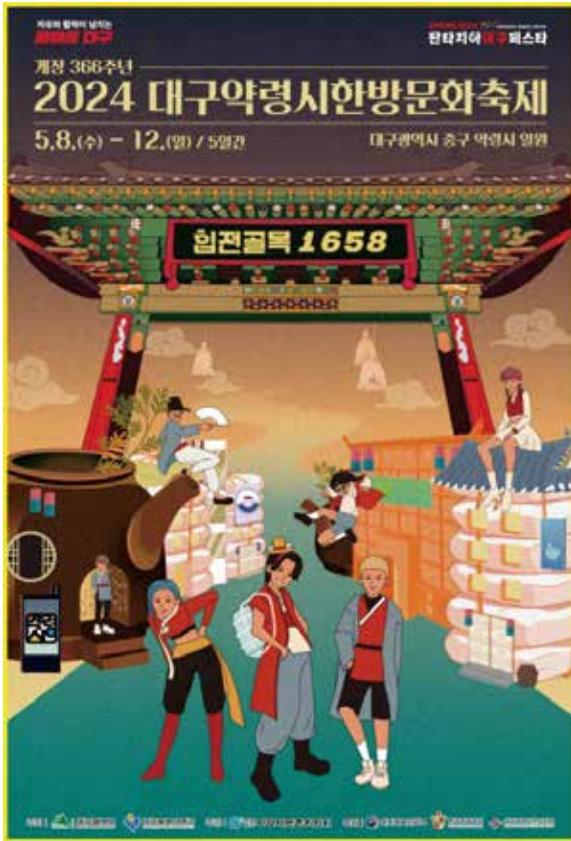
5월 18일(토) 성박숲 생명가든에서는 태교음악회가 공연되고, 5월 19일(일) 청소년 가요제 등 경북도 드림페스티벌이 진행된다.

5월 19일(일) 별외 줄다리기, 대동놀이, 그리고 불꽃놀이가 열리고, 이어 폐막식을 끝으로 즐겁고 신난 축제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편집국

■ 대구축제

2024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구약령시는 조선 중기부터 한약재를 판매하던 유서 깊은 약재시장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한약재를 공급해온 세계적인 한약재 유통의 거점이었던 대구 중구 약령시 일원에서 2024년 5월 8일(수)부터 12일(일)까지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합전골목 1658」란 주제로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중구 주최로, 사단법인 약령시보존위원회 주관하에 5일 동안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전통 제례악 공연에 맞춰서 고유제란 제(祭)를 시작으로 개장행사의 서막을 장식한다. 고유제는 초근목피를 한약재로 처음 쓰기 시작한 염제(炎帝) 신농씨(神農氏)를 모시는 고사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제(祭)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약령골목, 한방골목, 한의골목, 약초골목 및 약선골목 등 5개의 테마골목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현대판 퓨전 마당놀이인 조선굿판, 거리 공연 퍼포먼스 한방놀이 힘마당, 한의 체험센터에선 한의사 무료 한방진료 및 상담도 진행한다. 약초 및 약나무로 약초동산을 조성하여 주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어린이 및 가족단위의 놀이 및 체험공간

인 약령키즈존도 조성하여 운영한다.

약령시 주요 건물 5곳에 숨겨진 황금공진단을 특수분장을 마친 전문 좀비 떼를 피해 찾아가는 참여형 야간프로그래 좀비 스트리트도 진행된다.

2024 대구디아프「Diaf」

대한민국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디아프는 근대미술의 발상지이자 수많은 거장을 배출한 문화예술의 도시 대구를 무대로 「대구아트페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국내 미술시장을 넘어 세계적인 아트페어로 도약하고자 2022년부터는 「Diaf」라는 새로운 브랜드 네임을 내걸고 한국 미술시장의 저변확대와 글로벌 아트마켓으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2024년 대구디아프는 5월 2일(목)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5일(일)까지 대구 EXCO 동관 4, 5, 6홀에서 사단법인 대구화랑협회 주최로 역대 최대규모로 펼쳐진다.

대구지역 30여 개 갤러리를 포함해 전국 110여 개 갤러리들의 다양한 작품들, 그리고 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의 갤러리들도 다수 참여한다.

높이 3.6m, 폭 8m 대형 LED 뉴미디어아트가 전시되는 뉴미디어 아트존, MBN 교양프로 「헬로아트」 출연 작가들의 작품전시, 한-캐나다 문화수교 60주년 기념 전시 등 3개의 특별전도 개최된다.

어린이날이 포함되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전시장 한가운데 휴게공간도 마련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다.

디아프 티켓 소지자는 행사 기간 대구시티투어 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편집국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



경영평가는 조직구성원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정기간 동안 수행한 경영활동의 목표달성 정도를 사전에 설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서, 계획(plan), 집행(do), 평가(see)라는 경영관리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경영평가는 경영성과 또는 실적을 예산 또는 목표를 비교·평가하는 것으로서, 단기적으로는 경영자에 대한 공정한 보수의 결정과 인사고과에의 반영을 통하여 평가대상 업무의 능률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켜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경영관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필요성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민영화 방안에 대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왔다. 물론, 경쟁을 조장하고, 이윤 동기를 불어넣어 주는 민영화 방안이 공

공기관의 고질적인 비효율성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어려운 지방공공기관은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목적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이 달성하여야 할 목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미리 지표로 설정해 준다. 사후적으로는 이 기준과 실적을 비교·분석·평가하여 보상을 실시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데 있다.

공공기관의 연차별로 달성한 경영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차기 경영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일련의 환류 과정으로 경영평가 목적은 크게 정치적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 두 가지로 구분된다.

환경친화 글로벌 경쟁력



정치적인 측면: 공공기관 평가는 정부와 자치단체 및 시민 등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성이나 투명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관리적인 측면: 경영평가는 경영관리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경영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수단이다.

경영평가 지표

경영평가 지표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도구로 ◇리더십, ◇경영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책임 등 5개의 대분류와 중분류 체계도 이에 맞추어 수립되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공공기관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도구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변화

문재인 정부의 등장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의 중

요성이 강화되면서 평가 체계도 큰 변화가 있었다.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반영과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지속적인 반영 등으로 공공성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했으나, 경영 성과와 고유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특히, 공공기관은 ESG경영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 및 환경 지표로 변경되고, 세부항목에 환경보전 및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노력과 성과의 내용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ESG 경영은 기업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 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철학이다.

이는 기업이 이제는 단순히 재무적(금융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환경적, 사회적)에서도 성과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대영 편집위원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 인터뷰



본보에서는 '하나되는 대구경북, 경제 통합에 기여하는 정론'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달의 대경인' 코너를 진행한다. '이달의 대경인'은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과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재단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주)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이 선정되었다.

2019년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졌다. 2023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될 시점에 이미 우리 생활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었고, (주)레몬헬스케어는 더 편한 방법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비대면 의료환경조성에 기여했다.

신속한 코로나19 대응과 지원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었다.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힌 (주)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주)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입니다. (주)레몬헬스케어에서 플랫폼 사업총괄(CSO)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업 전반에 대한 시장 분석 및 사업 확대, 신규 BM 발굴, 그리고 제휴사 확대 등 당사의 외부 사업 영역 전반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주)레몬헬스케어는 어떤 회사인가요?

A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의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ICT기술로 환자와 의료기관을 잇고,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기업입니다.

병원 진료 예약부터 진료비 간편결제, 전자영수증 발급,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자동 전송, 실손보험 청구까지 가능한 레몬케어플랫폼을 병원 및 환자에게 제공하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진료 외 병원에서 거치는 모든 대면과 출력물 수령이 필요한 전 과정을 당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의료진에게는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연동된 의료진용 앱 '레몬케어플러스'를 통해 환자 관리, 진료 및 처방, 수술 일정 조율, 협진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몬케어플랫폼을 통해 의료시장 내 비대면 &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실현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 11월 비대면 진료서비스 오픈으로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 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Q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부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 국내 상급, 종합병원 대상 레몬케어플랫폼 확산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중소병원·의원 시장에 레몬케어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톡 내 당사 주요 서비스를 연동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중소병원·의원의 경우에도 주요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고 환자들과 별도의 앱을 설치하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빠른 서비스 확대가 예상됩니다.

Q 가장 큰 성과를 내거나 보람을 느낀 업무는 무엇인가요?

A 최근 '의료기기의 날' 행사에서 국내 최초 '페이퍼리스 모바일스마트병원 플랫폼' 보급 및 확대(현재 계약기준)로 상급종합병원 45개 중 33개, 73%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해 비대면 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비대면진료서비스' 앱 구축과 운영으로 코로나19 대응과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당사 임직원들의 수고와 열정에 대해 받은 상으로 생각되어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Q 스마트 헬스케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대구영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부터 IT 관련분야에서 일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02년 일본계 기업인 한국 후지쯔에 취업해 6년간 전문적으로 IT 관련 기술을 배우다가 대구에 본사를 둔 (주)데이터뱅크로 이직하여 처음으로 의료 관련 비즈니스를 접했습니다. 그때 타업종보다 의료 환경이 전파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느꼈고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는 홍병진 대표님과 함께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2017년 6월 30일에 (주)레몬헬스케어는 설립됩니다. 모기업인 (주)데이터뱅크에서 스피노프(spin-off)한 현재의 (주)레몬헬스케어는 (주)데이터뱅크의 보드멤버가 되어 국내 의료 시장을 선점하고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포부를 알려주세요.

A 요즘 헬스케어시장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원격진료, 약 배달 등 단편 서비스 하나로만으로도 수조 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료예약부터, 모바일 결제, 전자처방전, 실손보험 청구 등 A-Z종합 건강 관련 서비스를 실제 의료현장과 협업으로 연동시켜 제공하고 고도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전 국민의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당사가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청구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국내 최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유연한 사고로 비즈니스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며, 저는 누구를 롤 모델로 삼기보다는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싶다는 각오로 비즈니스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당사의 플랫폼이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될 때까지 정성과 열정을 다할 것이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런 경험치를 후배들에게 전파하고 싶습니다.

편집국



미래 신성장 동력 고령의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관련 시설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되고 개발되는 토지를 말한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조성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발표한 2023년 2분기 기준 전국의 산업단지는 국가 47개, 일반 715개, 도시첨단 42개, 농공 479개로 총 1,283개에 이르고, 입주업체는 120,532개사에 달한다.

고령의 산업지도를 바꿀 신성장 동력 고령의 산업단지에 대해 진단해 본다.

기존 산업단지

고령군은 1989년부터 2020년까지 ◇고령1, 2차산업단지(다산면, 각 636천m², 766천m²), ◇개선일반산업단지(개선면, 148천m²), ◇쌍림농공단지(쌍림면, 254천m²), ◇개선농공단지(개선면, 139천m²), ◇동고령일반산업단지(성산면, 749천m²) 등을 조성하여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섬유, 기계장비, 기타제조업 등의 다양한 업종별 개별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 4,137개가 운영중에 있다.

신산업단지와 투자유치

◇월성일반산업단지는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일원에 위치하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대구 생활권의 대구성서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지로 668천m²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반경 7km이내에 중부내륙고속도로 화원옥포IC, 유천하이패스IC, 대구외곽순환도로 달서IC, 광주대구고속도로 동고령IC가 인접하여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보유한 명품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

기계, 전기, 금속제조, IT 등 다양한 업체가 입주 가능하며, 건폐율 70%와 용적률 350%로 소형 필지부터 대형 면적



까지 다양한 크기의 토지를 협의할 수 있어 기업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열외일반산업단지는 개진면 일대 220천m² 규모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데이터 센터, 광물제조, 물류센터, 첨단산업 관련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며 이르면 2024년 상반기부터 단지 내 공장 입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송곡일반산업단지는 다산면 일대 262천m²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원활한 토지보상이 진행되어 2026년 준공이 되면 고령1,2차일반산업단지, 동고령일반산업단지, 대구성서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낙동강을 축으로 하는 기계, 금속, 자동차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군은 지역 산업·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해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2023년 12월 5일 (주)한국중부발전과 「친환경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성될 발전소는 성산면 오곡리 일원에 500MW급 LNG발전소 1기가 들어설 예정이며, 사용연료는 천연가스로 최첨단 환경설비 운영으로 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첨단기술산업 및 중견기업 등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고령군의 미래 산업지도를 구축할 전망이다.

동고령IC 물류단지 조성



고령군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광주대구고속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성산면에 동고령IC 물류단지가 114천m² 규모로 물류 및 지원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2024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준공예정이다.

고속도로IC 바로 연결한 물류단지로서 광역교통망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으로 물류수송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대한민국 중부권과 경남 및 전라권을 잇는 물류산업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의 패러다임 변화

고령군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토지분양가를 낮춰 규모있는 중견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을 펴고 있다.

유치업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변화에 발맞춰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해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그동안 산업단지 공급정책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던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지식기반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산업단지 관련 기존정책은 산업구조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고령군은 산업단지 수요패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령의 산업지도 바꿀 신성장 동력 고령의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편집국

상주 박물관의 꽃, 학예팀 조연남 팀장



조연남

상주 박물관의 꽃, 학예팀 팀장

Q 공무원을 직업으로 삼은 것이 언제부터이며 그동안 어떤 보직을 맡아왔었나?

A 제가 상주시 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은 때는 2006년 9월 6일입니다. 당시 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계에서 문화재 지정 및 관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표발굴조사 등의 업무를 보는 학예연구사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6월부터 상주박물관에서 전시, 교육, 기증, 기탁, 총서발간 등의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박물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학예팀의 팀장을 맡아 올해로 4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주박물관 학예업무 전반인 유물 수집, 발굴조사 및 다양한 연구, 순회전 및 협업전, 자체 특별기획전과 같은 전시, 유치원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Q 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A 공무원이 지녀야 할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덕목은 바로 친절입니다. 상주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만은 아닙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귀중한 유물을 기증이나 기탁하려는 분을 비롯해 상주 역사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분들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곳입니다. 늘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Q 공무원의 특성상 업무가 순환적으로 바뀌는데,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의 어려움은 없는가요?

A 저는 대학교에서 민중들의 삶과 문화를 다루는 학문인 민속학을 전공하고,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청에서 문화재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고, 2011년 6월부터 지금까지 상주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무에 비해 순환의 기회가 많지 않은 까닭에 업무를 맡을 때 순환이 잦아 생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학예연구사가 맡아서 하는 다양한 업무 가운데 특별기획전 업무는 매번 전시의 주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내용의 다양한 자료 및 연구를 바탕으로 참신한 기획이 되어야 함은 물론, 관련 유물 수집 및 선정, 전시 방법 모색, 전시 연출, 도록 제작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큰 업무이므로, 신경을 많이 쓰는 등 어려움은 있으나 보람 역시 제일 큰 일입니다. 또한 새로운 업무가 주어진다면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찾고자 합니다.

Q 현재 상주박물관에서 박물관 학예팀장으로 운영 계획 업무를 수행 중인데, 상주 박물관에 대해 소개 해주신다면?

A 상주박물관은 2007년 11월 개관한 공립박물관으로, 현재 5만점이 넘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가 및 경상북도 지정 문화유산 763점이 있습니다. 상주박물관 전시실은 크게 본관과 별관인 농경문화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북에서 유일한 상주자전거박물관도 상주박물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에는 특별함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전문직 관장님 주도하에 관리팀, 학예팀, 자전거박물관

관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장님과 세 팀장님이 힘을 합쳐 상주박물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계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운 계획에 따라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은 상주의 역사문화를 담고 있는 상주박물관의 큰 역할 중 하나입니다.

상주의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조사하고, 유물을 수집하고, 수집한 유물을 정리 및 연구한 것을 기반으로 전시와 교육, 공연, 교류 등을 통해 관람객과 만나는 기회를 가지며, 이 내용을 다듬어 책으로 발간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상주의 역사문화를 오늘에 되새기고 미래 후손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면,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Q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인가?**

A 2006년 처음 공직생활을 하면서, 벌써 1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보람찼던 일들과 즐거웠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중에 보람찼던 순간들 중 하나는 시청에서 문화재 지정 업무를 맡았을 때입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문중 어르신들과 서로 협조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국가나 경북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경험이 가장 보람찼습니다. 또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고, 「칭찬합시다」에 글이 게시되었을 때 공무원으로서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아울러, 즐거웠던 순간은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유물 수집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을 때인데요, 유물을 인수해 와서 정리 절차를 거쳐 증서를 직접 전달해 줬을 때, 박물관 직원들이 단합하여 특별기획전을 잘 마무리하는 순간이 즐거웠던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최근에는 수장고 증축 사업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한 방에 날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상주의 많은 분들이 상주박물관을 믿고 집안 대대로 보관한 귀중한 유물들을 흔쾌히 기증·기탁해 주실 때 가장 보람 있습니다.

Q **다른 동료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나?**

A 시청 문화유산 업무와 상주박물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보니, 본청의 공무원들을 많이 아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늘 바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어려움에 직면한 동료들을 살피려고 애쓰며, 직장생활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게 저의 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는 분들은 있습니다. 함께 일하면 즐겁고, 제 목소리로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Q **공직생활에 있어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는 무엇인가?**

A 현재, 상주박물관은 경상북도에서도 이름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을 도와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박물관으로 우뚝 서기 위해, 학예팀의 여러 학예사 및 학예연구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후에 준공될 수장고인 「옛담:옛 상주를 담다」을 통해, 그동안 수집 및 정리된 상주의 역사문화가 담긴 문화유산을 직접 보존처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상주의 오래된 미래를 가꾸고자 합니다. 국립 및 다른 지역박물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상주의 민속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지역문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문화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원현 기자



AI경제

2026년 AI 경제효과 310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6년 AI 경제효과를 310조원으로 전망했다.

310조는 AI 융합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연간 매출 증대는 123조원, 효율화·자동화 등을 통한 연간 비용절감 185조원 등을 합친 경제효과다.

정부는 최초로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 전반에 AI의 성공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예정, 공고하였다.

24개 산업별 설문조사

정부와 베인앤컴퍼니는 통계청 기준 총 24개 산업을 대상으로 매출 규모, 인건비, 그리고 운영경비 규모 등을 설문조사했다.

설문조사는 각 산업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상 매출 증분과 인건비 절감 규모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대상의 산업별은 ICT, 유통·금융·의료 등 서비스 산업과 건설·교육·농업·광업 등이며,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미디어·게임·통신, 그리고 법률·기술자문 등 전문 서비스업 등이다.



AI 도입시 총매출 대비 최대 평균 5.3% 증가

24개 산업별 종사자들은 AI 도입시 3년간 매출 규모를 최대 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2,305조원 총매출의 5.3%의 123조원 경제효과와 24개 산업별 인건비는 414조원으로 최대 15.6%를 절감한 65조원의 경제효과로 분석되었다. 운영경비는 24개 산업별 1,783조원으로 6.7% 절감된, 120조원의 경제효과로 나타났다.

AI 규제 체계를 구축,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안전한 개발

AI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안전한 개발을 통하여 과학적 발견을 지향하는 것이 원칙이다.

챗gpt와 구글 등은 개발하는 AI 기술에 상기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네이버, 다음 등 기업들은 AI 규제와 혁신에 대한 연구 정진과 아울러 인권에 대한 책임 등 체계화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5월에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열린다.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는 전 세계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들과 함께 AI 기회와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AI의 기대효과는 크지만, 잠재적 해로움에 대한 인식과 책임, 그리고 세계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AI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세대 경제성장 핵심동력

AI 기반 회사와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차세대 산업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되어야 한다.

AI는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인간을 지배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측면에선 AI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정책과 구조개혁의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 AI 기술은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혁신과 발전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70년대는 중공업 산업이 경제성장 원동력, AI 산업으로 경제선진국

우리나라 산업은 경공업 중심에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중공업 중심의 산업발전이 오늘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80년대는 자동차 및 정밀 기계, 그리고 '90년대는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컴퓨터 산업, 반도체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이 경제성장의 길을 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서비스 산업과 첨단 산업의 발달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전쟁 등으로 인하여 경기

침체, 고용불안, 그리고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핵심 AI 산업기술」을 확보하고, 집중·육성을하여 대한민국을 경제선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경윤 기자

■ 음식명가

본보는 음식명가 코너를 통해 고객과 독자의 입장, 맛 그리고 서비스 수준을 심층 분석한 데이터로 지역 음식점을 알려 나가고 있다. 음식 명가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기획재정부소관 학술연구기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 객관적 평가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측정 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 및 의사소통 등 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유형성'을 비롯해 서비스의 철저함 등으로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는 '신뢰성', 서비스 제공 의지를 나타내는 '응답성', 직원의 능력과 예절, 업체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뜻하는 '확신성', 접근가능성과 고객 이해 등을 내포한 '공감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평가 결과,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터길 10-6에 위치한 '녹원가'가 그 영예를 안았다.

비법에 정성을 더해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선사하는 '녹원가'



고령군 대가야읍 어느 한적한 곳에 자리한 음식점을 찾으니,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 주는 이가 있다. 미소 국가대표 녹원가 이경미(51세) 대표이다.

메기 매운탕집을 운영한 어머니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그 음식 솜씨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대표는 2003년 짬 고기집을 시작으로 요식업에 뛰어 들었다. 현재의 녹원가는 2008년 개업하였다.

녹원가는 좋은 쌀과 신선한 식재료, 그리고 질 좋은 고기의 삼박자를 갖추고 있다.

쌀은 일본에서 유명한 품종인 고시히가리를 직접 재배

해서 술밥으로 사용하는데, 임금님도 반한 뛰어난 밥맛을 자랑한다.

쌀의 수분상태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확 후 72시간 안에 도정한 쌀로 밥을 하여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그 맛 또한 일품이다.

밥맛만으로도 손님들이 극찬한다.

식재료로 사용되는 야채류는 남편분이 직접 고령에서 농사를 지어 로컬푸드로 제공되어 신선함이 탁월하다.

불고기 재료로 들어가는 한우도 투썸한우인 고급고기로 사용하여 영양과 맛을 동시에 잡았다.



정식류 대표메뉴는 이름이 대상으로 잡채, 생선, 된장찌개 및 기본 반찬에 밥은 솔밥이 제공된다. 솔밥은 영양솔밥과 곤드레밥 중 택일이다.

이에 더해 한우불고기, 홍어회 및 명태회를 곁들인 보쌈이 제공된다. 어린아이를 위한 돈까스도 차려진다.

금상, 은상, 그리고 특별상의 메뉴는 기본 반찬에 한우 불고기 및 보쌈코스, 고기만 제공되는 보쌈, 마지막으로 고추장불고기로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가격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녹원가는 신선하고 풍부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음식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한다.

기본 양념이 되는 간장, 고추장 등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음식의 간도 직접 농사지은 양파를 숙성한 간장을 만들어 간을 맞추기 때문에 음식의 풍미가 살아있다.

기본 반찬도 고추볶음, 나물, 짬아치, 배추김치 등 10가지 이상으로 대부분 주문 즉시 볶고 무친다. 음식의 간도 손님 입맛에 딱 맞도록 조절하여 제공되는 음식은 맛의 극치를 이룬다.



불고기에 들어가는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등 버섯류와 숙주, 청경채, 썩갓, 파채 등 채소류의 시원한 맛이 더해져 맛과 영양의 조화가 금상첨하이다.

녹원가의 음식 맛은 고령지역, 대구, 부산 등 국내뿐만 아니라, 멀리 일본까지 알려져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며, 단체관광객이 심심찮게 찾고 있다.



현재 녹원가 음식의 맛은 이대표의 어머니의 영향과 부단한 노력에서 비롯된다.

이대표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대학이나 강좌에서 요리 수업을 틈나는 대로 들으면서 본인의 요리 실력을 높여 왔다. 그러한 노력이 현재의 녹원가가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일 것이다.

이대표는 항상 손님들을 환한 미소로 응대하고, 최고의 서비스로 맞이한다.

이에 이대표는 2017년에 (재)한국방문위원회로부터 「미소국가대표」로 선정되었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도 지회표창」까지 수상하여 고령군 대표 으뜸식당으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대표는 녹원가 한끼의 음식으로도 손님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에 정성까지 쏟아붓고 있다.

이웃도 돌아보며 지역사회에 기부도 아낌없이 베풀고 있는 이대표는 곧 고령군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오른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친절함이 몸에 밴 유쾌함이 넘치는 이대표의 녹원가는 앞으로 승승장구 할 것이라 보여진다.

편집국

대구 여성들의 발자취-대구 근대골목 일대



2024년 4월 21일(일) 잔인한 4월의 달력을 적신 봄비가 그쳤다. 이팝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따라 대구유형 문화재 제1호 경상감영 선화당에 이르니 세월을 가슴에 품은 듯한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제59차 답사를 위해 모인 대구민학회 회원들이다.

때는 바야흐로 1969년도 저물어가는 초겨울 어느 날, 우리 문화를 아끼는 몇몇 사람이 진주시 어느 대팩집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날 술을 마신 몇 분이 지금 회원 45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단체라 자부하는, 비영리 단체며 순수 동호인의 모임이라는 「민학회」의 원로회원들이다.

기층민 문화유산 답사모임 대구민학회

1970년대만 해도 우리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아끼고 연구하는 사람은 전문연구가거나 아니면 몇몇 특정인에 불과하였으며, 다루는 문화유산도 국보급 보물급에 치중하고 있던 터였다. 옛 생활용품이나 각 지방의



독특한 풍습, 몇몇 사람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基層民의 음악, 그리고 이름없는 그림 등에는 전혀 눈길이 닿지 않고 있었다. 그즈음 우리는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남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선조의 이런 손때묻고 보잘것없는 문화유산을 찾아내어 정확한 쓰임새를 알아보고 이를 세상에 알려 연구할 수 있게 해보자는 순수한 마음에서 회를 조직하였다. 그러기에 민학회는 民+學舍와 民學+舍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옛 우리 선조들 특히 일반 백성들이 향유하였던 모든 것에 귀기울여 보자는 매우 광범위한 뜻이 함축되어 있다. 누구나가 별거벗은 자세로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의 基層文化에 대한 연구와 논의에 동참해 보자는 취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

민학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답사의 매력에 반해 지방에서 뜻을 같이하는 분이 많았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광주에서는 1986년에 '광주민학회'가 결성되었고 1994년에는 '부산민학회'가, 1998년에는 공주에서 '금강민학회'가, 2001년에는 대구민학회가 결성되었다.

전국 민학회 단체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국 공동답사를 년1회 이상 시행하고 있고, 대구민학회도 분기별 1회 이상 답사를 다니고 있다.

대구여성탐방로 대구근대골목 반지길



대구여성탐방로 반지길은 탐방로의 시작과 끝이 만나는 반지 모양의 동근 길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은반지와 패물을 기부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국채보상운동조직 '남일동 패물폐지부인회'의 정신을 되살리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구 대구여성가족재단)이 개발하고 이름 붙인 길이다.

이 길은 남일동 부인회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 교육자, 그리고 비행사 등 시대적 제약을 넘어 진취적으로 활약했던 근대기 대구 여성 30여 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답사코스는 반지길 투어 코스 역방향으로 진골목-종로-약전골목-옛 제일교회-마당깊은집-계산성당-고택-3.1절 운동길-동산으로 이어진다.

여성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한 진(긴)골목으로 접어든다. 해방 이후 지역유지들이 살던 부촌이다. 대구 최초 2층 양옥에서 운영되던 정소아과의원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1978년 개업한 미도다방에서 그 유명한 쌍화차도 맛보고, 최근 오픈한 스타벅스가 한옥으로 지어져 진골목과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어 찾는 사람들이 많다.

1907년 2월 21일 대구근민대회에서 남자들이 나라빚을 갚기 위해 금연을 결의하자 진골목에 살던 일곱 분의 부인들이 패물을 바쳤다. 패물헌납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남일동 패물폐지부인회는 국채보상운동의 첫 번째 여성운동 조직이다.

2015년 대구여성가족재단이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렸던 7부인 중 6명의 이름을 밝혀냈다. ◇서채봉, ◇정경주, ◇김달준, ◇정말경, ◇최실경, ◇이덕수인데, 그중 정경주가 취지문을 작성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읍성의 남쪽문 영남제일관으로 시작되는 종로에 오면 기생 앵무로 알려진 염농산(1860~1947)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있다. 한때

경상감영 교방의 관기였으나 달성권번을 결성하여 초대회장이 된다. '기생은 돈 많은 사람만 섬겨선 안 된다.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하며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자 거금 100원(당시 집 한채 값)을 기부하였다. 1937년 교남학교(현 대륜중고)에 2만원에 달하는 택지와 건물을 기부하는 등 염농산은 기생으로 살았으나 바람 앞 등불 같은 나라를 위해 한 몸을 바친 큰 스승이었다.

대구읍성의 남쪽 성벽길인 약전골목길을 따라 옛 제일교회에 이른다. 대구제일교회는 대구·경북지역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교회 구내에 1900년 대남소학교, 1906년 계성학교, 1907년 신명학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의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고, 지금은 대구기독교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은 소설 「마당깊은 집」의 스토리와 등장인물, 대구 피난민의 삶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문학 체험 전시공간이다. 길남이가 신문 배달하며 뛰어다녔을 법한 골목 끝 집으로, 이곳에서 길남이네 가족들과 함께 1950년대 대구를 만날 수 있다.

‘끼니는 굶어도 정신은 깨끗해야 한다’고 교육한 서중하의 막내아들 김수환 추기경의 사제서품식이 거행되고,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와의 결혼식이 치러졌던 계산성당을 지나 고택으로 향한다.

이상화, 이상정, 서상돈 고택길이다.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 이상정(시인 이상화의 형)과 결혼하고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투쟁에 투신한 권기옥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전투기 비행사로 조국 광복을 위해 먼 이국의 땅에서 힘차게 하늘을 날았다.

해방 후에는 우리나라 공군 창설에 앞장서는 등 평생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현진건 길이라고도 하는 3.1만세운동길은 대구 문화예술가들이 단골로 찾던 곳이다.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기녀로 이름을 떨친 현계옥은 「빈처」의 소설가 현진건의 형인 현정건을 좇아 중국에서 여성의열단원으로 항일투쟁을 하였다. 영화 「암살」의 안옥윤(전지현 분), 영화 「밀정」의 연계순(한지민 분)의 모델이 됐던 여성독립운동가이다.

청라언덕은 달성토성이 대구의 중심이었을 때 동쪽에 있다하여 동산으로도 불린 언덕이다. 20세기 초 기독교 선교사들이 거주하면서 담쟁이를 많이 심는데서 유래하였다.

아름다운 정원인 이곳은 스위트 주택과, 챔니스주택, 블레어주택 등 옛 선교사들이 생활했던 주택과 90계단, 3.1만세운동길, 대구 최초의 서양사과나무,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인 동무생각 노래비,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묘지인 은혜정원 등이 있다.



동산 대구제일교회에 보호수 수령 200여년 된 이팝나무는 고향생각의 작곡가 현제명의 이름을 따서 「현제명나무」라고 한다. 이팝나무꽃은 옛 시절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 보릿고개가 닳쳐올 때쯤 피던 꽃이다. 꽃송이가 사발에 얹힌 흰 쌀밥처럼 보여 「이팝나무」라 했으며, 이팝이 이팝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 유래가 재밌다.

대구 근대골목 일대를 답사하면서 대구 근대 여성들의 발자취를 살펴본 시간이었다. 해설사의 '남성이 가문을 잇는 존재라면 여성은 가문을 지키는 존재이다'라는 말처럼 대구 근대여성들은 '현모양처론'에 머물지 않고 시대적 제약을 뛰어넘어 진취적으로 선각자의 삶을 지켜온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편집국

팔공산 자락의 청정자연 속 쉼터
자연의 풍요로움과 배움의 성장
교육과 힐링의 중심 대경교육원



대경리조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신의 교육시설 및 편안한 쉼터의 숙박시설, 양질의 식사, 각종 체육·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경북 경산시 와촌면 (청통와촌C에서 5분 소요)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수려한 주위 경관과 잘 어우러져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대경리조트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
Home Page: www.dghrd.co.kr

돈이란 무엇인가?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강성광 경영학박사

솔직히 돈을 논하는 것은 속물인간으로 비취질 수 있기에 서로가 금기시하고 있는 것이 그 동안의 우리의 현실이었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우리는 돈을 벌고 있는데도 왜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53년에 67달러에서 2023년 33,745달러로 까지 올라왔다.

[출처 : 2020년 1인당 GNI(구매력평가지수,PPP),·\$,OECD]



그런데, 「국민들의 삶은 나아졌는가?」 또한 「돈을 더 많이 저축하고 모으고 있는가?」 반문해 봤을 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의문시 된다.

필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본인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러한 부분을 치열하게 고민할 필요 없었던 10대 때는,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으로 편하게 생활을 해 왔었다. 아울러, 20대에

은중계도 대기업 취직을 하고 혹은 30대부터 회사에 취직을 하여 돈을 꾸준히 벌었지만, 막상 퇴직 시점이 되었을 때는 내 은행 잔고는 비어있고, 부채만 가득한게 대부분의 직장인들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현실이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특히, 5세부터) 「돈(경제) 공부」를 시키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고려·조선 시대의 직업에 따른 사회계급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이 존재함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 학문을 숭상하는 것도 좋지만, 상업 즉, 돈을 버는 것에 대해 그리 좋은 시각이 아니었고, 심지어 천시해 버렸었다. 그러니, 돈을 버는 것은 뒷전이요. 오로지 책을 읽고 쓰기에만 급급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에만 천착(穿鑿)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 하게 되면 속물인간 취급받고 미천한 사람으로 도외시 한 결과 작금의 현실이 된게 아닌지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따라서, 1970년대 산업화시대부터 200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을 하였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좋은 대학교를 가라하고, 고등학교시절까지 열심히

공부하라고만 했지 돈에 대한 관심과 관리, 소중함 등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해주지 않았기에, 지금의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돈은 자본주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교환 수단임을 명심하고 5살 때부터 경제적 교육을 통해 자본을 잘 축적하고, 퇴직 후(약 49세)에는 돈으로 인하여 비참해지는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근로자가 아닌 자본가가 되어야만, 퇴직 후 돈을 잘 운영해 갈 수 있다. 그와 반대로 된다면 돈에 지배를 받고, 휘둘리는 비참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몸을 사용해서 버는 근로소득을 잘 쌓고, 자본화하여 자본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 하기를 바라본다.

2)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모을 수 있을까?

현재 50~60대인, 1980년대 학번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기 시절 대기업이나, 소위 말해 좋은 회사에 대부분 취직을 했었다. 그리고, 정년퇴직(만 55~60세)까지 거의 30년간 직장생활을 영위해 왔다.

집도 한 채 장만하고, 가용할 현금도 일부 있다. 그러나, 지금 20~40대는 정년퇴직까지 한 직장에서 수 십년간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당장, 각 개인의 가계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기업



만이 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가계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매일의 수입과 지출등을 꼼꼼히 기록해 보고, 한달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아야만 한다. 그러한 생활이 일상이 된다면, 매일의 계획 수립이, 1달의 개인 자산관리 계획으로 지속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의 목표가 생기고, 그에 따라 1년의 자산관리 계획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상은 언뜻 보기에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혹은 귀찮은 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쌓이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개인 경제를 원활하게 운용하고 스스로가 개인 혹은 가정경제의 최고의 운전수가 되어 돈을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은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전국민운동으로 퍼진다면 전 국가적 절약 정신과 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부모님 세대 또한 자녀로부터 해방이 되어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OECD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자살율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경제부터 잘 행겨야만 한다. 초년에 성공에 심취하여 돈을 함부로 쓰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돈에 의해 우리의 미래는 암흑으로 뒤덮일 공산이 크다.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 돈을 벌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많은 돈도 하루 아침에 다 사용하고 ZERO상태가 될수 있는 게 돈의 현실이다. 청년 시절에 근로소득으로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그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에도 투자하여 본인의 자산을 늘려나가야만 된다. 멈춰서 있거나 안주해서는 절대 안된다. 돈은 발이 4개라서, 발이 2개인 우리 인간보다 빠르다. 인내하고 버티는 자만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3)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왜 돈을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고 강조하는 것인가?

집 밖으로 나갈 때, 예전에는 1~2km 짧은 거리를 다닐 때, 걸어서 다니거나, 뛰어나기도 했었다. 그러면,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대중교통이 발달 되어 있어,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택시에 교통비를 지불해야만 한다. 여기서부터 돈이 필요하게 되고 사용이 된다. 그 금액이 1,400원부터 ~ 1,500원까지 (왕복이면 2,800원~3,000원), 지속적으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과거와 달리, 우리의 수명은 연장이 되었다. 예전에는 60세가 되면 환갑 잔치를 하곤 했었다. 70세가 되면 돌아가시거나 그 이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80세~90세까지 장수하니, 요양병원에 입원도 많이 하게 된다. 그 요양원 비용 또한 무시 못 한다.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양극화는 심화가 되며,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과거와 달리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익어갈 자유도 없게 된다.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병원비와 자신들의 생계비를 함께 충당해야만 하는 어려운 시점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 건강한 체력을 이용하여 근로소득 시기 동안에 충분히 절약하여, 곧 다가올 나의 개인의 미래를 돈으로 인해 걱정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누리고 싶은 적당한 선의 돈은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다.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특히, 직장에서 알토란 같은 월급이 꼬박꼬박 수입으로 잡힐 때, 우선 저축부터 하고 남는 부분을 최소한 사용하는 전략을 직장 초년생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야만 한다. 아울러, 퇴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퇴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휴직기를 거치고 나서는 바로 일자리를 찾아(물론 퇴직전에 계획을 세워 두고) 힘이 닿는 날까지 관속에 들어갈 때가 은퇴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돈을 중요하게 다뤄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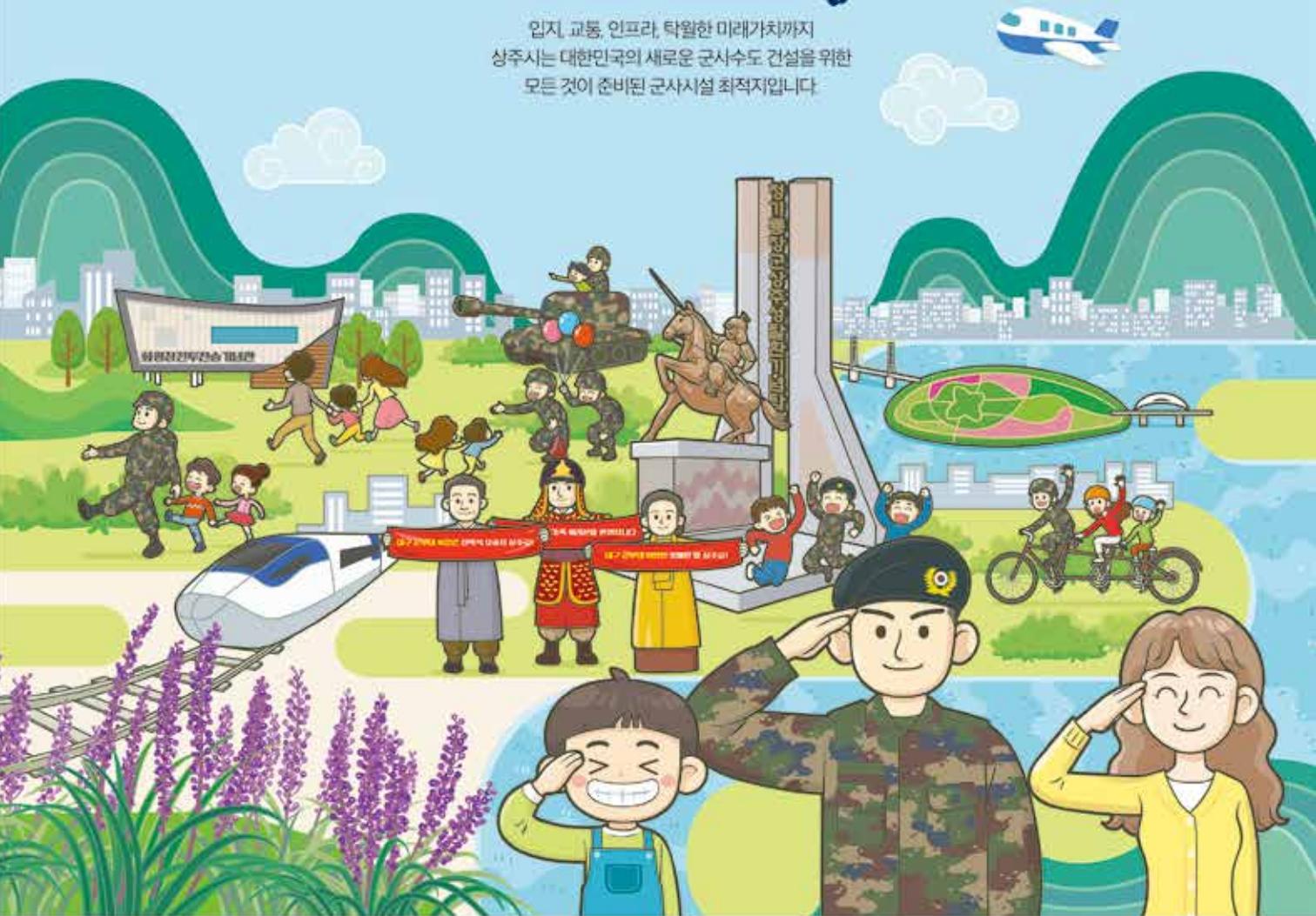
TV 드라마에 나오는 현실이 다가 아니고,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후반에 극빈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고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부자 1~10%가 전체 자산의 60~70%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먼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되, 하루하루의 계획을 잘 짜서 돈 관리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개인의 수중에 항상 돈이 나올 수 있는 구조화를 해 두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점」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돈」또한 「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굳게 믿으며, 집 밖에 나가면 모든 것이 「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합시다.

자본주의의 필수품인 「돈」을 잘 관리하는 사회풍토를 정부와 함께 조성하여, 대한민국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자본주의 사회로 변모했으면 하는 바램을 안고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경제 관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만 같음 한다.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최적의 입지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중남부지역을 수호하는 군사시설 최적의 입지

원스톱 지원

이전사업 TF팀을 조성하여 군사시설 부지 확보부터
조성, 부대 이전까지 원스톱 행정적 지원 확대

사통팔달 교통망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에
6개의 고속도로, 통합신공항까지 갖춘 사통팔달 교통망

풍부한 정주 인프라

원도심 가까운 곳에 자리잡아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복합타운 건설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땅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문적인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결집된 유치 의지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 법과 제도

2023년 공유재산 질의회신 감사 사례

2024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공유재산 질의 회신 및 감사 사례집」 중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 관리위탁」 감사원 감사사례를 일부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제4항 관련[별표4] 6.가.1) '입찰방법기준' 및 4) '낙찰자 결정'에 따르면 관리수탁자 선정 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고가 낙찰'을 하도록 되어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를 매년 징수할 수 있고,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감사사례 】

-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민간위탁 공고를 '최고가 낙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기안하였다. 이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인데도 '최고가 낙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료 산정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감사원 감사사례 이외에도 관리위탁 원가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의 4. 위탁료 산정에는 원가계산 비목을 지출항목에는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이 수입항목에는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을 명시하고 있다.

수입항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입장료·이용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공공시설에 대해 징수한 수입액을 의미하고, 사용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의미하고, 기타수입은 재산관리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광고비 등을 말한다.

윤일형 편집위원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정책결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론조사 및 종합학술연구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06년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인재 Pool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과물을 제공합니다.



재단법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811-2820

■ 대구 단신

5월 가정의 달, 가족사진 촬영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무료인 줄 알았는데, 촬영 이후 추가 비용 발생 불만 多

대구광역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진행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전국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사진촬영」 관련 접수 건은 2021년 2,049건(대구 78건)에서 2023년 2,302건(대구 105건)으로 12.3%(대구 34.6% ↑) 증가했다.

2023년 「사진촬영」 관련 월별 소비자상담 현황을 보면 특히 5월에 많이 접수됐고,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상담 사유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전체상담의 49.7%를 차지했고, 다음은 계약불이행 21.4%과 청약철회 7.3% 순이었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가족사진 무료 촬영」, 「무료사진 선착순 지원」 등의 온라인 광고에 유인된 소비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가족사진 촬영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쟁이 많았다.

상담 내용을 상세 분석한 결과 일부 사진관은 「○○ 시민 대상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 「○○ 지역 거주자 대상」이라는 광고로 지자체와 함께 무료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뒤 뒤늦게 사진관 자체 행사임을 알게 된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선지급한 예약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또는 수십 컷의 사진을 촬영 후 작은 크기의 사진(앨범)을 1, 2장을 제공 받은 소비자가 촬영한 사진 원본을 추가로 요구하면 고가의 액자와 앨범 제작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료 가족사진 SNS 이벤트 신청 후 당첨돼 메이크업과 의상대여 비용만 소액 부담하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관을 방문했는데 그냥 돌아가자니 아까워 생각하지 못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는 불만을 호소했다.

특히, 소비자가 비대면 상태에서 계약사항을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계약해제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 사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촬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 무료라는 광고에 현혹돼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 정부와 지자체는 특정 업체를 지원하지 않는 점을 알아 둘 것
- ▲ 계약체결 전 세부적인 계약조건(환불규정, 사진·액자·앨범의 크기, 제공 수량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 ▲ 촬영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5월 가족의 달을 앞두고 가족사진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계약사항을 꼼꼼히 살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년 대구치맥페스티벌 본격 준비에 나선다!

4월, 홍보기획, 콘텐츠 개발 등 치맥리더스 8기 20명 최종 선발

대구광역시와 (사)한국치맥산업협회는 4월 17일(수)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 치맥리더스 8기」 20명 최종 선발을 시작으로 2024년 치맥축제 준비에 본격 나선다.



치맥리더스는 치맥페스티벌을 젊음이 넘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축제의 주된 관람층인 2030세대의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8기째인 올해 치맥리더스는 지난 3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했다. 모집 결과, 20명 선발에 100명의 대학생들이 신청해 평균 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치맥리더스에 대한 지역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한국치맥산업협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치맥리더스들은 ▲SNS를 통한 홍보기획 ▲치맥축제만의 온오프라인 발굴 ▲치맥축제 자원봉사자인 치맥프렌즈 선발·운영 등 축제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한국치맥산업협회는 2023년 치맥축제 자원봉사자 가운데 우수 자원봉사자 32명을 선정해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올해도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자원봉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에 이어 2회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대구치맥페스티벌은 한국관광공사가 5월 17일(금)부터 5월 19일(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하는 「2024 K-콘텐츠 관광마켓 in 상하이」에 참가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는 7월 3일(수)부터 7월 7일(일)까지 5일간 두류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4년 대구치맥페스티벌 기간에 다회용기 보급을 위한 '다회용기 순환시스템'을 구축해 친환경 축제로 개최한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힘든 과정을 통해 선발된 치맥리더스 8기 여러분들이 2024년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열정과 젊음이 넘치는 축제로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대구시도 치맥리더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북 단신

독도에 대한 관할과 영토주권은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에 있다! 경북도,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가 4월 16일(화)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왜곡된 사실을 담은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이어,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한일 교류와 협력 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해 온 일본정부의 외교 활동과 국제정세를 정리한 공식 보고서로 수년째 독도에 대해 왜곡 기술하는 등 한·일간 외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아이가 있는 미래, 무엇으로 가능한가? 전국민에게 물어본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현장이 체감하는 저출생 정책 추진을 위해 전 국민 정책공모에 들어간다.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해 온 저출생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현장을 잘 모르고, 현장이 체감할 수 없는 방향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이가 있는 미래는 무엇으로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이어진다.

공모 분야는 크게 ①저출생 극복 정책 아이디어와 ②결혼 출산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북도 홈페이지 공고문(이메일)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참신성·실현 가능성·효과성·노력도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우수제안 60여 건에 대해서는 각 1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참여자 전체 추첨을 통해 200여 명에게 문화상품권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5월 21일~22일,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별 통지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은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이 핵심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고, 결혼, 출산, 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경북도, 드라마·영화 촬영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나선다 도·상주시·엔피오Ent, 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5일 상주시청에서 (주)엔피오엔터테인먼트와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강영석 상주시장, 표종록 엔피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원활한 제작 환경 조성 및 상호 간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 상주시가 드라마 촬영을 위한 부지 제공, △ 제작사의 지역 홍보와 콘텐츠 활용, △ 작품 제작 인력과 자원의 지역 업체 우선 활용과 공급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에 함께한 엔피오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창립한 회사로, MBC의 「웃소매 붉은 끝동」, JTBC의 「킹더랜드」, 넷플릭스의 「너의 시간 속으로」 등 유수의 인기 작품을 만든 역량 있는 제작사이다.

엔피오가 제작하는 이번 작품은 상주시 낙동강 부지에 조선시대 물류와 경제의 중심인 한강 마포 나루터를 구현하는 가상 역사극으로, 4월부터 세트장 설치에 들어가 스태프와 배우 등 200여 명이 6개월 동안 지역에 머물며 30억원 이상을 소비한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영상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르면 상주는 경천섬 관광단지 인근 부지를 활용해 1천평 규모의 대형 실내 스튜디오와 크로마키형 야외 스튜디오를 구축한다.

또, 300객실 규모의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을 조성해 배우와 제작사가 장기간 머무르면서 작업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한다. 이러한 계획은 단기적인 작품 유치뿐 아니라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연관 산업들의 동반성장과 함께 지역에서 인재를 직접 양성해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K-영상 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스토리의 보고”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만의 독특한 문화 산업적 가치를 활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컬처 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에서의 영상 촬영이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영상산업의 창작과 기술력 중심 접근이 지역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체 유치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활동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영 기자

■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은 우리 사회가 묵시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불편한 사실로 인하여 분열과 불신으로 치유할 수 없는 사회병리 현상으로 나타남. 따라서 경영저널은 불편한 진실을 알려 관계자 및 정부 당국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배우자 출산휴가, 현실을 무시한 강행규정

배우자 출산휴가는 정부가 저출산 대응책으로 모성보호 강화, 태아의 건강, 그리고 남성 근로자의 자녀 양육 적극 참여를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이는 일·가정 양립정책으로서 2008년 경제활동과 돌봄 노동을 병행함과 아울러 국가의 출산 제고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강행규정하고, 위반 시 사업주에게 벌금과 징역형으로 형벌을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통상임금 수준을 지원하여야



지원내용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은 401,910원 (2024년 기준)을 지원하고, 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해당 중소기업은 정부 부담분 5일분, 약 40만원을 뺀 나머지 실질지급액을 모두 지급하여야만 노사 간의 신뢰와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5일치 최저 임금수준의 지원정책은 포퓰리즘 정

치로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가중, 노사갈등, 그리고 직원들 간의 형평성 논란 등 노조갈등을 일으킨다.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원하여 법 취지에 맞는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오는 2024년 7월부터는 정부가 100%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임금 수준으로 100%를 지원하여야 한다. 단, 대기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가운 기자

연도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현황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사용근로자 수	지급액
2019	1,059	397
2020	18,720	7,050
2021	18,270	6,904
2022	16,168	6,146

* 주 :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사용근로자 수가 다른 해에 비해 많지 않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23.1.17.)



‘대경인재개발원’은
경영평가사, 리더 역량개발, 그리고 인재양성 등
교육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 및 프로그램

- AI·인재양성
- 리더십 역량개발
- 창업 및 기업가 정신
- 경영평가사 자격수여
- 성공 및 감성마케팅
- 테마별 맞춤 특강
- 학점인증제 및 교육훈련
- 펀(Fun) 경영 등 경영전략
- 주민자치대학, 좌담회, 토론회 등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30, 그루타워 502호
(대흥동 873-1)Tel) 053.721.6757 Fax) 053.766.0379

경북본부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766.1368

“경영 실적 보고서 작성 역량 강화 실무 교육”

경영평가사1급 자격시험!

8월
시험공고!

경영 실적 보고서 평가 등급 “S” 받기

국가공인 자격증 승급시 1급 필기 면제 혜택까지

과목	대상자	일정
ESG와 지속가능경영	경영평가사 활동을 희망하는 자	홈페이지 참조 및 세부 사항은 전화문의
경영평가 방법론	공공기관 및 기업의 경영 실적 보고서 관련 담당자	대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 www.dghrd.co.kr
인적자원 관리론	경영평가 위수탁 용역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자	교육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자격명 : 경영평가사1급
- 등록번호 : 제2023-004860호

- 자격발급기관 : 주식회사 대경인재개발원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위 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문 의 ☎ 053-766-1368

|주대경인재개발원

경영평가 실적 관련 용역수행 ·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 문화예술